

<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<선생님 코치> : 새벽설교를 할 때는 항상 앞부분에 ‘주일말씀 주제’를 인식 시켜주고, 잠언을 전해줘야 된다.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 ‘주제’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.

- <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주는 잠언>은
‘한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잠언’입니다.

1. <하나님과 성령님>에 대해 배워라. 그러면 ‘전지전능하신 삼위의 궤도’에 들어가게 된다. 너희 스스로 배우기 어려우니, <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>을 듣고 또 듣고, 읽고 또 읽고, 기도하고 깨달으며 배워야 된다.
2. <기도할 때>마다 깨우쳐 주시니, ‘깨닫게 해 주시는 것’을 귀하게 여겨라. ‘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’이다.
3.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나 여호와와는 조언할 때 <한마디 잠언>을 준다. 그 한마디 속에 ‘천 마디’가 들어있다.” 라고 말씀하셨다. 이를 깨닫고 <잠언의 말씀>을 귀하게 보고, 기도하고 깨닫고 행하여라.
4. 어느 때는 3시간을 기도해도 잠언 <하나>를 주신다. ‘왜 잠언을 하나 밖에 안 주시지?’ 했는데, 그 잠언을 풀어보니 ‘잠언 20개’가 나왔다.

5. <하나님과 성령님>을 보지 못할지라도 있다고 믿고 행해라. 그래야 ‘신앙’ 이 성장하고 잘 된다.
6.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>은 신이시니, ‘육신의 레이더망’ 에 안 보인다. ‘영의 레이더망’ 에는 상징적으로 보이시고, 어느 때는 느껴지고 잡히기도 한다.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도 해 주시고, 병도 치료해 주시고, 늘 돕고 함께해 주신다. 얼굴을 보이고 ‘안 도우시는 것’ 보다, 얼굴을 안 보이고 ‘도우시는 것’ 이 낫지 않느냐.
7. <돌>마다 ‘형상이 없는 돌’ 은 없다. 그런데 어떤 자는 돌을 발견하고 수십 년을 보아도 ‘그 돌의 형상’ 을 발견하지 못한다. 왜? <형상이 보이는 위치>가 있는데, ‘그 각도’ 에서 봐야만 제대로 보이기 때문이다.
8. <만물>도 <사람>도 ‘어느 위치’ , ‘어느 각도’ 에서 봤느냐에 따라 평가가 좌우된다. <위치와 각도>에 따라 좋게 보이기도 하고, 안 좋게 보이기도 한다.
9. <월명동의 돌들>을 보아라. 각도마다 다 형상이 있어서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고, 한 각도에 ‘최고의 형상’ 이 있어서 작품으로 가져다 놓았다. <성자바위>도 어떤 각도에서 보면 ‘보통 돌’ 로 보이지만, 제 각도에서 보면 ‘성자의 상징적 형상’ 이 확실하게 보인다.
10. <나무>도 ‘각도가 제일 좋은 쪽’ 이 앞에 보이도록 심는다.

‘작품성이 없어 보이는 쪽’은 뒤로 가게 심어 놓는다.

11. <돌>은 ‘ 좋게 보이는 곳 한군데’만 있으면, 전체가 다 좋지 않아도 ‘최고로 값비싼 돌’이 된다. <사람>도 마찬가지다. ‘최고의 장점 하나’가 있으면, ‘최고로 귀한 존재’가 된다. 동서남북, 각도 별로 다 좋게 보이는 자도 있지만, 그렇지 않은 자가 더 많다.

12. <자연석 돌>은 손을 대서 만들수록 ‘가치’가 떨어진다. 그러나 <사람>은 만들수록 ‘가치’가 높아지고,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‘그 형상’이 아름답고 신비하다.

13. <사람>은 동서남북으로 갖추고 만들수록 이상적이다.

14. <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치>를 배우고 깨달아라. 그래야 ‘만물’을 보든지, ‘사람’을 보든지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보게 된다.

15. 저마다 <기도>하여 ‘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의 말씀’을 깨닫고, ‘높은 차원의 것’을 전해주어라. 그래야 ‘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’을 더욱 크게 받는다.

16. <만물>을 만들고 개발해 놓아도, <사람>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‘만들어진 만물들’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.

<월명동 자연성전>도 ‘하나님의 구상’으로 최고로 만들었지

만, <자기>를 ‘그 수준’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름답고
신비하게 보지도 못하고, 귀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, 하나님께
감사 감격하지도 못한다.